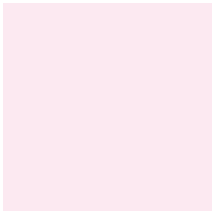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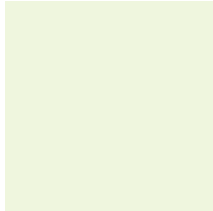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6 제208호(통권 427호)



02 권두언
04 장학현장
06 장학칼럼
08 전문가 초대석

•역사는 생명입니다 / 권정호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 김영채
•연금소식 -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건강상식 - 유방암 수술 후에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 장석원
•다양한 영어활동으로 자신감 UP! 영어표현력 UP! / 신희경
•단계별 과학 활동을 통해 개별 실험 및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 보아요! / 김혜진
•직업기초능력을 길러주는 수업 / 구금희

12 수업기술 나누기

19 교육정보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이병만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해외 현지 채용(초빙)교사 / 장학월보 편집부

25 이색 교육현장

•세 학교 한 학급 이야기 / 하재설
•작은 실천으로 변화하는 양덕행복교육 / 한기경
•전교생이 함께하는 '북천 올림' 합주단 / 전경희
•미래를 향한 즐거운 영어 놀이터 / 변복도
•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금병 체육 한마당 / 구인수
•G·E·E(Green-Ecology-Education)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 김원주
•수업분석실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 / 강신화
•건강 한 손가락 예절 두 젓가락 / 안언희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한 수준별 방과후 교육활동 실현 / 추행욱

45 참여마당

•교 원 - 살아남은 자의 몫 / 김경영
- 나비효과 / 이영혜
- What a delight! / Chantal Pare
•학부모 -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구미숙
•학 생 - 지리산 지킴이 / 정은지
- 미래의 탐험 / 류인혜
- 사랑하는 선생님께 / 최우진

57 향기나는 서가
59 음악이야기
61 지상갤러리

•남은, 상실 / 김보라미
•쇼스타코비치의 'Second Waltz' / 하승우
•겨울연가 / 안숙란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7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6월 16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6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 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배정철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역사는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벌써 날씨가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60만 우리 교육 가족들께서 모두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서해를 지키던 천안함 참사로 우리 국민 모두가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안함의 46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한주호 준위와 민간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저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그 정신은 핏속을 면면이 이어온 혼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형성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차제에 우리의 학교 교육은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가를 재고(再考)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휘날리는 태극기의 모습만 보고도 뭉클하게 느끼던 감동을 자라나는 세대들도 느끼고 있을까요?

일례로 요즘의 교육행사를 보면, 국민의례를 영상 화면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이는 태극기의 허상을 보는 셈밖에 되지 않으며, 사람이 그 허상을 보고서 감동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의 정신을 살려야 할 의전(儀典)은 규범을 지켜 엄숙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전은 엄숙하면서도 정확해야 위엄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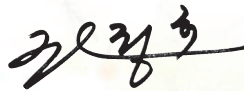
이제 무궁화를 울타리로 키우는 세태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관목으로 키워야 보는 이의 마음도 새롭고, 무궁화를 보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과거의 정신은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져 민족의 큰 저력이 됩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바른 정신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진주교육청 - 학생상담 자원봉사활동
- 02 거제교육청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 03 거창교육청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무자 연수
- 04 김해도서관 - 찾아가는 열린 인형극장
- 05 남해교육청 - 과학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회
- 06 마산교육청 - 이용봉사활동



07—



08—



10—



09—



11—

- 07 의령교육청 - 자매결연학교 한마당 체육대회
- 08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가족문화체험 미술쇼
- 09 진해교육청 - 어머니 배구대회
- 10 통영교육청 - 농촌 일손 돕기
- 11 함안교육청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 협의
- 12 함양교육청 - 떡메 치는 날



12—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김 영 채
경상남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외모가 최고인 것처럼 누구나 외모만 가꾸려고 전심전력을 다하였지만, 다행히 지금은 외모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사고가 변할 때 우리의 교육도 같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은 담당자들의 업무로만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초·중·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진로·직업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업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새겨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업(職業)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활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방법이며, 사회발전과 인류 번영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게 일을 하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거나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의 적성을 잘 파악하여 진로·직업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즐겁게 일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선생님들은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매우 바쁜 학교생활로 피곤에 지쳐있겠지만,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전/문/가/초/대/석

박진영
공무원연금공단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단 부산·대전지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이는 것이 힘!’ 이라고 말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단 부산지부와 대전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특히 2004년부터 꾸준히 부산·울산·경남지역 연금수급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부산지부는 지난 4월 15일 전정숙 변호사를 부산지역 전담 변호사로 신규 위촉하여 법률 자문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분야는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교통사고, 가사, 상속, 부동산 임대차까지 생활전반을 아우릅니다. 상담은 전화와 방문 모두 가능하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자세한 약력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단지부 → 부산(또는 대전) →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지역	자문변호사	자문법무사
부 산	전정숙 051-916-8582	서진호 051-501-0048 윤기장 051-507-8880
울 산	이성진 052-271-3322	김재동 052-265-5840
경 남	임영수 055-275-0001	이성수 055-264-0900
대 전	김동환 042-472-4720 김영호 042-488-7831 이효상 042-472-2589	
충 남	김종덕 041-565-3313 한종술 041-555-3500	
충 북	김일진 043-285-1717 박인준 043-283-2000 임현정 043-283-3773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1588-4321입니다

공무원연금컨택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7가지 서류를 한번에 발급

공단의 제휴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살다보면 내가 연금수급자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문자도 따지지도 말고 1588-4321! 공무원연금컨택센터(이하 '컨택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통화 내용 녹음 후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녹음되는 통화 내용 중에는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을 위해 그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발급대상 서류는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현직공무원에게만 해당)를 비롯해 퇴직(유족)연금증서와 휴대용 연금수급증까지 총 7가지입니다.

이 중 퇴직(유족)연금증서와 휴대용 연금수급증은 신청 후 우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수급자의 신분증과도 같은 휴대용 연금수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증명사진을 먼저 컨택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진 보내실 주소는 '(305-325)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2-2번지 공무원연금컨택센터'입니다.

이 밖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를 비롯한 5가지 서류는 우편은 물론 팩스나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시스템 이용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회원가입 후)로그인 → 내 연금보기 → 민원 서류발급 → 서류 전달받을 방법 중 인터넷 발급(신청인이 직접 프린터로 출력)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와 통수, 용도를 결정한 후 신청 버튼 클릭'입니다.

연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도, 기억하면 힘이 되는 번호 1588-4321! 공무원연금컨택센터입니다.

기차여행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업무제휴로 철도 여행상품 5~8% 할인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기차여행은 어떠세요. 달경달경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계절 풍경을 바라보는 여정은 기차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여정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맞춤형복지 → (회원가입 후)로그인 → 제휴복지서비스 → 여가활동 → 국내여행/해외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을 클릭하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기차여행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요맘때 기차와 국립공원을 결합한 생태체험여행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5월엔 덕유산, 속리산, 내장산, 지리산, 치악산, 태안, 변산반도를 주제로 한 여행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한 강릉에서 추암까지 동해안을 마주보고 달리는 바다열차는 계절과 상관없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지난 4월 우리 공단과 코레일관광개발이 만나 기차여행의 가격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다녀 올 수 있는 국내 기차여행과 국내 테마여행, 국내 체험여행의 할인율은 8%, 국내 기차숙박여행 패키지 상품의 할인율은 5%입니다.

기차여행을 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 먼저 우리 공단 맞춤형복지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둘러보고 맘에 드는 상품을 꼭 짚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번거롭다면 코레일관광개발 02-2084-7732에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시 연금수급자임을 꼭 말씀하시고, 대금 결제까지 마쳐야 예약이 완료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급한 일로 여행을 취소하신다고요? 걱정마세요. 출발 3일 전까지는 100%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코레일관광개발 02-2084-7732).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유방암 수술 후에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유방암을 수술한 환자에게서 많이 듣는 질문으로 수술 직후에 저하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육류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포화 지방이나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 수술 후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요령은 채소와 과일을 적극 섭취하는 것이며, 술을 피하고, 권장하는 섭취량을 준수하면서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식품류와 암 발생 연관을 나열한 표입니다.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근거	위험률 감소	관련성 없음	위험률 증가
확실한		커피	
거의 확실한		콜레스테롤	비만, 술
가능성 있는	육체적 활동, 섬유질, 카로티노이드류	불포화지방산, 레티놀, 비타민 E 가금류, 홍차	총지방(포화 지방, 동물성 지방) 육류
근거 불충분한	비타민 C, 리그난, 아이소플라본, 생선		동물성 단백질

1. 채소/과일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적극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는 하루 5~6가지 이상 섭취할 것을 권하고 과일은 과당이 많으므로 2~3가지 정도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채소, 과일에는 유방암 예방 인자인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류, 섬유질을 모두 포함하며 그 밖에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므로 정제, 녹즙의 형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채소, 과일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2. 콩

콩은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예방에 유익하고 호르몬 의존 성인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 하는 호르몬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암 물질이 있는데 아이소플라본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에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다량의 콩을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고 다량 섭취할 경우 열량이 높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콩 제품(콩밥, 된장, 청국장, 두유 등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허용하되 보충제로의 추가 섭취와 일상수준 과량 섭취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만

비만인 사람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며 폐경 후의 여성에게는 피하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섭취량을 준수하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 합니다

4. 지방

총 지방 섭취량의 증가,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는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은 발생률과 관계가 없으며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은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유방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군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카놀라유 등 식물성 기름을 콩고루 이용하되 한 끼에 1차술 정도로 과하지 않게 섭취합니다. 등 푸른 생선(오메가 3 지방산 풍부)은 주 3~4회 1토막 정도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육류

육류는 질이 좋은 단백질과 철분, 셀레늄, 비타민 B12 등 유방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육류의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므로 유방암의 위험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안심, 등심, 갈비, 꼬리, 족, 삼겹살, 닭 껍질 보다는 기름이 적은 살코기로 주 1~2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6. 술

과다한 양의 알코올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켜 유방암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주 할 것을 권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식사 원칙>

- 가.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합니다.
- 나. 하루 3끼 식사는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합니다.
- 다. 육류는 1회는 섭취량을 100g(1/2인분) 미만으로 하여 주 1~2회 이하로 줄이며 기름이 많은 부위는 피하고 살코기로 섭취합니다.
- 라. 식물성 기름(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올리브 등)은 한 끼에 1~2 찻술 이하로 사용하며 조림, 찜, 무침 등의 조리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 마. 생선(흰살, 등푸른 생선)은 주 3~4회 적극 섭취합니다.
- 바. 유제품은 저지방 제품으로 하루 2컵 미만으로 섭취합니다.

사.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하루 6접시 이상(한끼 2접시) 섭취합니다.

아.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하루 2회 정도 섭취합니다.

자. 천연 조미료(파, 마늘, 생강, 겨자, 식초,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를 활용하여 기호도에 맞는 식단을 갖춥니다.

차. 골다공증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영양요법을 준수합니다.

카. 술, 담배는 금합니다.

타.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는 일광을 합니다.

파. 주 3회 이상 하루 1시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골다공증의 예방,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유방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완치할 수 없으므로 조기 발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식사 중 칼슘 섭취량을 1일 1,200mg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뼈의 건강에는 칼슘 이외에도 단백질, 비타민 D, 인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루 세끼의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콩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다른 무기질과의 자연스러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제로 되어 있는 칼슘 보충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섬유소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짜게 먹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양이 많아지므로 심하게 먹도록 합니다.

알코올은 뼈세포 형성에 나쁜 영양을 미칠 뿐 아니라, 알코올로 인해 영양 섭취가 부적절해지므로 과음하는 사람은 골밀도가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페인도 신장과 장을 통한 칼슘 배설을 촉진하므로 과다한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뼈의 형성을 도와주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실리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협조: 대한 유방암 학회>

다양한 영어활동으로 자신감 UP! 영어표현력 UP!



신 희 경

통영 진남초등학교 교사

Episode. 영어 수업 속 들여다보기

하나, 교과서 CD-ROM의 Listen and Repeat 시간, 다같이 따라 말하기를 해 보았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씩씩하여 ‘너석들, 제법 영어를 잘 하나봐.’라는 기대를 갖고 짝 활동을 해 보자고 했더니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모른 척 하고 1분단 맨 앞에서부터 해 보았다. 반 이상의 아이들이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둘, 챗 활동 시간, 빠른 비트의 챗트가 나오자 몇몇 아이들만 제법 따라할 뿐 대다수의 아이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오늘 배운 표현이잖아. 쉬운 챗트인데, 왜 못해?”라며 교사의 무심한 한 마디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셋,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시간, 2모둠에서 수군거림이 있어 가 보았다. 모둠원의 한 아이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들끼리 작은 내분이 일어난 것이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옆에 있는 짝이 말을 가로채며 “선생님, 애는 원래 영어 못해요.”라고 답한다. 다른 한 녀석이 자꾸만 게임을 안 하고 판지를 건다. “OO야, 게임 안 해?”라고 물었다. “쉬워서 시시해요.”라고 말한다.

Question!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갑자기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한 교실 안에 30명 남짓, 그러나 영어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벽을 보면서 1주일에 2시간인 짧은 영어시간, ‘어떻게 활용해야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듣기·말하기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해답의 키는 “Everyday English!”였다. 아기들이 처음 우리말을 배울 때 같은 단어를 삼천 번 이상 반복하여 들어야만 그 단어의 음과 의미를 알듯이 영어도 무조건 많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 1~2시간의 짧은 영어시간으로는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영어수업 밖, 교실 밖, 학교 밖 영어활동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몇 가지 영어활동을 소개 해 보면,

EBSe는 내 친구

아침시간, 비 오는 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EBSe의 영어동화 듣기를 해 보자. 이 활동으로 알파벳이 발음되는 소리를 이해하고 그림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함으로써 맥락적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Tip! EBSe와 EBS는 달라요!)

Sing Sing English

노래를 통해 활발하고 동적인 영어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어에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보자. (Tip! 시중에 유아들을 위한 영어노래 책과 CD 속에는 초등학생이 재미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영어 노래가 많다.)

꼭, 꼭, 약속해!

할기차면서도 밀도 높은 영어수업을 위해서는 3월 한 달 동안은 바른 학습태도와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하자. 집중약속, 학습활동약속, 모둠활동약속, 게임활동약속, 발표약속 등 학기 초에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잘 다듬어 놓으면 1년의 수업이 잘 흘러간다.

Password Time

하루에 영어 한 문장씩 모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교사는 그 시간에 배우는 중요 문장 하나를 password로 정하여 수업을 시작하면서 칠판에 적거나 말해 준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교사에게 와서 password를 말한다. 이 활동은 모든 아이들이 입을 열 수 있고, 기억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날 배운 문장을 자기 언어로 완전히 체득하여 영어과 기초 학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Win Win English

40분의 수업시간 안에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도와주기는 어려운 법! 아이들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더욱 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교실에서 종종 본다. 그래서 영어도 영어 시간에 항상 멘토, 멘티 짝꿍을 만들어 영어 시간에 함께 서로 도와가며 활동하면서 영어 실력도 쑥쑥~

Special Day!

특별한 영어시간을 만들어 보자! 영어를 3~4년째 배우고 있는 고학년 아이들은 교과서의 단순한 활동들을 슬슬 지겨워한다. 그래서 흥미를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할극, 요리, 영어시장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의 장을 제공한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에게는 준비에서 정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힘든 활동이지만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유의미한 장면들을 통해 정말로 영어표현능력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중요한 경험!

English Newspaper

영어권 나라의 문화 소개, 영어 퀴즈, 학생들의 영어 일기나 편지글, 영어만화, 원어민 선생님의 글 등 다양한 자료로 채워진 영어 신문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러한 활동으로 듣기·말하기 중심의 학교 영어학습에서 읽기·쓰기 경험도 가질 수 있고, 학교로 한정된 영어학습 환경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유도할 수 있다.

새미학습

컴퓨터를 너무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e-영어세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새미학습! 새미학습을 개설하고 수업을 생성하여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활용해 보는 것도 good idea!

Epilogue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 반은 영어를 많이 해요?” 아이들과 함께 한 지 한달째 되던 무렵, 우리 반 아이들이 내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영어를 강조하는 선생님의 모습과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영어 활동들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르겠다.

▶제일 큰 고민은, 그저 고개 숙이고 영어 시간 보내려고 마음먹은 녀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 나의 연구의 성패가 달린 것이었다.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틀리면 쏟아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놀림이 두려워서 의욕을 누른 채 앉아있는 중하위권 아이들의 꺾인 의욕을 세워주는 것도 고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로라도 활동으로 끌어당길 수 밖에 없었다. ‘무조건 분위기 창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처음에는 아주 싫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 아이들 모두가 동참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소모적인 생각보다 ‘우선 해보자.’라는 강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

▶요때 살짝 필요한 것이 교사의 ‘카리스마’였다. ‘카리스마’는 버럭버럭 지르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안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조건부 협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규칙과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렬한 의지!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카리스마’.

▶아이들에게 꼭 하고픈 이야기. “얘들아, 혹시 자기가 좀 빨리 영어공부를 시작했다고 좀 늦게 시작해서 서툰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영어가 어설피네 어쩌네’라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친구는 우리 반에서 한 명도 없겠지? 우리 서로 도우며 공부해 보자. 다른 나랏말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움의 바다로 우리 함께 노를 힘차게 저어 나갈 수 있다면 영어만큼 재미있는 공부도 없을 거야. 지식도, 능력도 모두 남을 돕기 위해 쓰일 때 가장 아름답단다. 미래에 세계인과 어깨를 견줄 작은 꿈나무들! 파이팅!”

단계별 과학 활동을 통해 개별 실험 및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 보아요!



김혜진
마산 신월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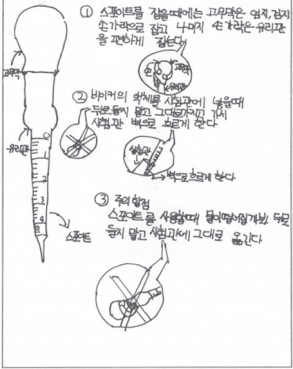





평소 과학 수업에 있어 교사가 문제의 해결과정을 모두 제시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지시 한대로만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결과도 교사가 정리해 준다면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능력을 함양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탐구적인 실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탐구과정을 포함하는 과학 수업이 필요하다.

이에 단계를 밟아나가며 실험에 필요한 기능, 탐구하는 과정을 키워 나가는 단계별 과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실험 및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 이런 단계로 실천하였습니다

단계	프로그램명	중점 활동 내용
1단계 제대로 알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과학책 속의 실험기구 -실험기구 사용법, 주의할 점 등 기초적인 실험기구 조작 능력 키우기
2단계 호기심을 해결하면	호기심을 해결하면	매 주 주제에 관한 과학적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호기심 뉴스	주제에 관한 각자의 관심 분야를 조사한 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 공동 작업으로 과학신문/과학잡업북 제작하기
3단계 실력이 쑥쑥	재밌고 신나는 실험	개별 실험/모둠 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 활동을 통해 개인별 실험 능력 향상 및 협동하여 실험하는 능력 기르기
	실험보고서 작성	실험활동에서 실험 계획 및 과정/결과를 간단한 형식의 실험보고서로 작성하기

2.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호기심을 해결하면	실력이 쑥쑥
 <p>과정1 재대로 알고 (과학실험 기구 사용법)</p> <p>5학년 1반 (17번 이혜(가운잡기))</p> <p>2. 스포이드 사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이드를 잡을 때에는 고무쪽은 엄지손가락과 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스포이드를 움직이게 잡는다. 2 바늘의 위치를 시험관에 넣을 때 주둥이 쪽은 스포이드를 잡는 손과 시험관 바닥 쪽을 움직이지 않는다. 3 주의할 점 스포이드를 사용하며 불안전하게 잡지 말고 꼭 잡고 사용한다.  <p>스포이드를 잡는 방법, 비커나 시험관에 액체를 넣는 방법, 주의할 점</p>	 <p>과정2 호기심을 해결하면</p> <p>5학년 1반 (17번 이혜(가운잡기))</p> <p>2 <사막에 사는 생물 (선인장)></p>  <p>부 선인장은 원래 사막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열이 많고 건조하며 겨울을 하여보니 경산경함이 덜한 열은 도랑하고 수분을 저장 할 수 있는 줄기만 발달 되었습니다. 줄기도 두꺼운 껍질을 통해 수분의 증발을 막습니다. 선인장의 줄기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 동물들이 많이 마실 때 마실려고 하는데 대항이 없기 위해 가시가 있습니다.</p>  <p>♡ 우리 나라에서 가라노 선인장은 2cm 정도 되고 따뜻한 가라노 대륙이 발견되며 겨울에도 가라노.</p> <p>사막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선인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p>	 <p>미니 피펫, 빨대와 다용도 흡관을 이용하여 설탕용액으로 증 만들기</p>  <p>6구 흡관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용액과 지시약으로 실험 실시</p>

3.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 개개인이 실험기구를 직접 다루어 보고 자신이 터득한 실험 기구에 대한 지식들을 실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실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 과학 관련 서적이나 교과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무심히 지나쳐 왔던 과학적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과학 시간에 실험활동은 재미있으나 실험 후 결과 정리가 쉽지 않던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실험능력은 물론 결과를 이끌어 내는 탐구 능력까지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직업기초능력을 길러주는 수업



구 금 희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수석교사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식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과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기초 직업교육기관인 공업계 고등학교는 폭넓은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업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 인력만을 배출하는 직업훈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된 공업교과의 목표에서도 말했듯이 직업교육은 민주시민과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자질, 그리고 관련 분야의 기초직업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업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를 길러주어 미래의 직업 생애를 개척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영역의 9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평가 결과 각 영역별 차이는 있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높게 평가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전 교과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교과 수업은 대개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론수업의 경우 대개 교실에서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기수업의 경우는 기능 숙련을 위한 단순 반복 작업 형태의 수업이 대다수이다.

산업현장과 유사한 학습 환경 속에서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현장적응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설명기법이나 수업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강의식 이론수업에서 교사의 단계적인 발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한 확산적 발문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발문을 한다. 단계별로 힌트를 제공하면 학생들은 이에 대답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력을 좀더 발휘하며 학습목표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위해 단어장 만들어 활용하기, 질문하기, 다같이 읽기, 학습지 풀기, 도표나 그림으로 그려보기, 모듈 구성원끼리 역할 바꾸하기, 돌발퀴즈로 상품이나 수행평가점수 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좋다.

둘째, 실습교과에서 효과적인 기능학습은 정확하고 완전무결한 교사의 시범을 보이고 모방 동작연습, 반복실습을 통해 숙련된 기능을 익히게 되나,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할 수 있다. 실생활에 유사한 과제(프로젝트) 부과, 정보수집, 계획수립, 수행, 점검, 평가, 종합토론의 7단계를 수행한다. 먼저 모듈원이 토의와 토론을 거쳐 모듈 활동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스스로 탐구하며 제작하고, 시연하며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직업기초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방법은 인지·정의·기능적 영역을 더불어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 중심 실습과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 전문교과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더 나은 수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이 병 만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개발담당 장학사

■ 변경 전 내용

-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2006.6.30 ~ 2008.2.3까지 : 5년
 - 2008.2.4 이후 : 10년
- 기관별 적용시점
 - 2006.6.30 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2.4 부터 적용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 변경 내용

-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2010.1.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위임
 -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
- 과태료 부과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06.6.30, 보건복지가족부)
- 시행일 : 2010.01.01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02-2023-8853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268-1194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제도 시행

■ 변경 전 내용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제도가 없어 인사적체 및 사기저하

■ 변경 내용

- 목적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 도모
- 대상 :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직원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계획(교육지원과-6298)
- 시행일 : 2010년 6월, 12월(2회)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268-1427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쓰는 순서	
①	학년말 업무
②	학년 초 업무 계획
③	업무결재 관련
④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⑤	출결 및 전출입
⑥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⑦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⑧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
⑨	각종 누가 기록 관리 2
⑩	기록부 정정 대상
⑪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출결 및 전출입	NEIS
----	----------	------

이번 호에서는 출결 및 전출입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 결

가. 출결 관리

▶ 출석부의 □칸이 없는 날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 [학사일정관리] - [연/월간학사일정] - [연간학사일정관리]에서 '공휴일' 또는 '휴업일'로 지정된 날로 출결사항 입력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출결마감 된 후 승인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신함에서 해당 승인 문서를 찾아 상신취소기안을 한 후 마감취소 하여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 출결 비교 입력

▶ 학생별 출결사항의 사유를 적고자 할 때는 <비고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기입할 수 있는 <출결비교입력>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비교란에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하면 됩니다.

▶ 이곳에 입력되는 ‘출결비고’ 사항은 출결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 사항’ 란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출결 특기사항 입력

▶ 이 메뉴의 ‘특기사항’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입력되는 내용입니다.

2. 전입/편입/재입

가. 전입/편입/재입생 등록

▶ 편입생은 전입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 본교에 해당 학생의 자료가 있을 경우 편입(본교)을 선택하여 재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신규취득학적의 경우 학년 반을 설정하면 해당반의 가장 끝번호가 자동 입력되므로 남자와 여자의 번호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학교의 경우 전입생의 신규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 편입(타학교)인 경우는 전출교 및 이전학교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하지만, 재입, 복학, 편입(본교)인 경우 이전학교가 본교이므로 별도 송부 없이 자동 연계 됩니다.

나. 전입/편입생 자료 요청 취소

▶ 요청 상태가 ‘등록’이 아닌 ‘학적반영’, ‘전입자료요청’, ‘전입자료도착’ 일 경우에는 자료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상태가 아닐 경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 ‘학적반영’ 된 자료는 학적반영을 취소하고, 자료요청을 취소한 뒤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자료요청’ 및 ‘전입자료도착’의 경우는 자료요청을 취소한 뒤 삭제하면 됩니다.

다. 전입/편입/재입생 전산 미등록자 등록

▶ 어떠한 이유에 의해 전산자료가 없는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학적을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다른 국적의 학생을 등록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주민번호’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무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3. 전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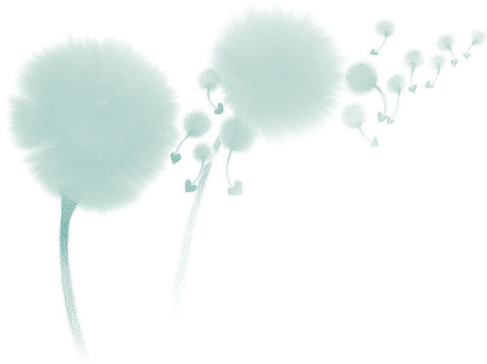
가. 학생부 자료 작성

▶ 전출 자료 요청이 온 학생에 대한 학기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해당 메뉴에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성적] 및 [학교생활]의 해당메뉴에서 미입력된 성적,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자격증, 수상대상 등을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 ▶ 전출생 출결자료 정리 및 확인은 [학적]-[출결]-[출결관리]에서 해당 학생에 대해 전출일자까지 출결상황을 입력하여 저장한 뒤, 그날까지 출결마감을 합니다.
- ▶ 전출일자 기준으로 월마감(기간마감)을 하지 않으면, 현재 마감된 상태까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전출입 관련 ♣

- ▷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불가)
- ▷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의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해외 현지 채용(초빙) 교사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지되어 있는 문의사항 및 재외 한국 학교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외 현지 채용(초빙)교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재외 한국 학교 및 교육원 근무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좋은 안내 자료가 되길 바란다.

- 장학월보 편집부-

■ 해외 현지 채용(초빙) 교사란?

- 해외 현지 채용(초빙) 교사는 해외 한국 학교가 현지에서 국내의 거주 교원자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에 의해 채용한 교사를 말함
- 파견 임용 제도와 같은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각 해외의 한국 학교 및 교육원 자체 채용계획에 의거하여 수요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게 됨

■ 해외 파견 교사에서 해외 현지 채용(초빙) 교사제로의 전환 시기와 이유

○ 전환 시기

2007년 선발시험부터 기관장(학교장 및 원장, 분원장)만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기관장을 제외한 교사의 해외파견 선발 대신 현지 채용(초빙 교사 포함)으로 전환

○ 전환 이유

- 파견 교사와 초빙 교사(고용 휴직 교사)간의 차별대우에 따른 갈등 해소
- 재외 한국 학교 및 한국 교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 현재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 학교와 한국 교육원 설립 추세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 및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해외 현지 채용(초빙) 교사 응모시 준비 사항

○ 채용 공고 확인

- 해외 한국 학교별 자체 채용계획이 다르므로, 학교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함
- 현지 채용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일반공지/재외동포교육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고용 휴직

현재 임용된 학교에서 고용 휴직을 한 후, 현지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함

○ 경력 인정 여부

고용 휴직 상태에서 해외 한국 학교에서 전임으로 상근 근무할 경우에 승진평정경력과 호봉확정경력이 10할 인정됨

■ 해외 현지 채용(초빙) 공고의 일반적 내용

재외 한국 학교 및 교육원 별로 각 기관의 수요에 맞는 자체 계획에 의거하므로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탑재된 공고문들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고문의 일반적 제시 내용

- 채용 자격
 - 선발과목, 인원, 공통 자격 요건
 - 우대 요건(학교별 상황에 따라)
- 근무 조건- 보수와 복지 관련
- 채용 시기(계약 기간)
- 지원 절차

구비 서류

- 교사 지원서
- 자기 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우대 조건 증빙서류
- 학교장 추천서

■ 해외 현지 채용(초빙) 응모시 구비 서류(예시)

각 학교마다 공통으로 요구되는 교사 지원서의 경우, 아래의 양식이 일반적이며 그 외 자기 소개서의 경우는 연구 실적, 교수·학습 계획, 학급 경영관, 지원학교에 대한 발전 계획 등 해당 학교마다 작성 양식이 다르다.

<별첨>

교사 지원서

거원과목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4cm)
	(한자)	E-mail	
주소(우)	(영문)	소속교육청명	교수·학급 사건
	집	전화(지역)	
학교		휴대전화	학과
		전화(학교)	
		팩스(학교)	
학력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원	대학원	학과
교직관련 자격증	자격종별	발급기관	발급일자
개 인 사 랑 항 목	학교명	재직기간(년월)	담당업무
		... ~ ... (년)	학년
		... ~ ... (년)	학년
		... ~ ... (년)	학년
		... ~ ... (년)	학년
생애본 연표	교직경력 총 (년)		
생애본 연표	(기간 : 유 무 ~)	특기 (구체적으로)	
	일본 연락처 (연락처가 있는 분에 한함)	협력형	종교 군경력
성명	성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직업 (구체적으로)
			동반 여부
			현재 자녀의 학년(유·초·중·고)
			자녀 본고 진학 희망 여부(O, X)

종별	연수(연구대회)명	기간	시형청	성적	기타
	자격연수				
연수 및 연구 경력	일반연수				
각종 연구대 회					
기타 교육관 련 연수					
외국 어 능력	종별	능력시험 종류	등급 또는 점수	시형청	시행일자
					비고
교제 집필	교제명	저자	발행처	출판사	발행년도
해외교육기관 근무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과목	주당시수	기타
귀국학생 지도 및 연수 경력	연수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기타

출처 : <http://www.mest.go.kr>(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양 미 현

김해신안초등학교 교사

□ 시작하며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U-러닝 선도학교로서 사이버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을 구축해 온 본교(교장 이우기)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싹을 틔우고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는 모두가 그룹의 멤버이자 리더로서 기능할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리드해 가려면 어린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자질이 발현되려면 현실적으로 기초와 기본을 갖추고 책임감과 남을 배려하는 인성적 자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교는 이러한 인성적 자질이 리더십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데에 공감하고 리더십 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전에

지난 1월 겨울방학 때는 3일 동안 ‘어린이 리더십 강화 캠프’를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본 캠프의 내용을 전달하고 리더십 개발과 바른 인성을 갖기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 정기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학급에서 자치활동시간과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에 맞는 리더십 지도로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학습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환경과 시간관리, 집중력과 이해력, 암기력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학습 방해 요소를 진단,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 학력을 향상시키며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2010학년도 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01



01 내 꿈의 롤모델 찾아 따라하기

□ 월요일 리더십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이면 본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잠재된 리더십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훌륭한 리더들의 탐구를 통해 리더십의 뜻과 자신의 잠재된 리더십 유형과 강점을 알아보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인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그룹관리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회시간을 활용한 리더십 프로그램

매주 6교시에 실시되는 4~6학년 봉사위원들로 구성된 전교 어린이회의에서는 70여명이 두 반으로 나뉘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매주 진행되는 학급과 전교 어린이회의 시간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요소인 목표설정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천과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본교 어린이들의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만의 리더십을 개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리더십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리더십 개발과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주 2회,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학부모의 심도있는 상담과 학습코칭으로 상습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돕는 것이다.

초기 활동으로 자기주도 학습력을 다져가기 위한 기초적인 10개 요소의 학습능력을 진단하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을 실천하며, 시간과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 등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습과 기억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법과 효과적인 기억법, 공책 필기법, 쉽게 따라하는 독서토론 방법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본교에는 곧 5~6월중 리더십 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올해의 본교 중점 교육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구체적인 학습법 지도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정착으로 정했다. 리더십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가



02 교장선생님의 리더로서의 당부말씀

지고 있으며, 또한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모두에게 필요한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마치며

리더십은 특정한 소수만이 가진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자질을 사용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집단의 유익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에 의해 누구나 개발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리더십은 시민적 소양이 될 수 있으며 리더십 개발 교육은 21세기가 추구하는 학교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본교와 인근 지역으로 리더십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의 실천으로 리더십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공교육의 질과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본교에 구축하는 리더십 센터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03



03 구분과 반복학습의 카드 암기

작은 실천으로 변화하는 양덕행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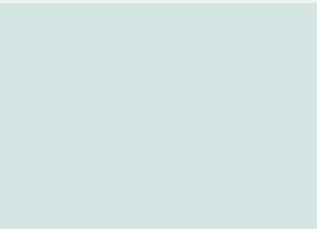


한 기 경

마산 양덕초등학교 교장



01



02

I. 신발 가지런히 넣기로 덕성교육 실천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밀려나는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지도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은 기본 방향 중에서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다양한 효제 체험활동’을 제시하였다. 본교에서는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인 덕성교육, 효제 체험활동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손쉽게 실천하면서 그 효과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일 실천하면서 한 눈에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신발 가지런히 넣기를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아침에 학교에 와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수업 전 마음을 가지런히 다스려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하던 대로 아무렇게나 신발을 넣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나 담임 선생님들이 일주일 정도 꾸준히 지도하자 신발을 가지런히 넣지 못하던 아이들도 바르게 놓는 습관이 들었고, 복도를 지날 때 정리된 신발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신발을 가지런히 넣는 습관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게 만들어 학력향상이라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기본교육이 점점 소홀해지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하여 집에서도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며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행복한 양덕어린이들이 되어 가고 있다.

II. 수영교육으로 인재교육 실천

초등학교 수영은 체육교과 게임 활동(2007개정 교육과정 도전활동) 영역내 계절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년별 단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영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체육 교과서와 이론상으로만 수영을 배우고 그 단원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따로 수영장을 찾아 실습까지 해보기란 쉽지 않다.

01 '습관을 바꿔요! 지구가 행복해요' 캠페인 모습

02 운동회날 손수건 사용을 알리는 모습

본교는 아주 가까운 곳에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우리누리) 수영장이 있는 지역적인 장점을 살려 전교생을 대상으로 2개 반씩 반을 새로 편성하고 체육교과 계절활동(물놀이 단원)의 내용에 따라 강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수영장 인솔 및 강습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며 수모, 수경, 수영복은 개인 지참을 권유하되 없는 아동을 위해 수영복, 수경, 수모를 따로 준비하였다. 담임선생님이 인솔을 하고 우리누리 수영장 강사가 반별 1명씩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수영을 배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전액 부담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해주기 위해 지역적 여건을 살린 수영교육은 진정한 이색교육이라 생각한다.

Ⅲ. 개별 손수건 사용으로 미래교육 실천

화장지를 물에 묻혀 장난을 치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배수구에 버려 배수구가 막히는 모습은 어느 학교나 발생하는 모습이다. 본교에서도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어 주었더니 일부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배수구를 뚫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고장 또한 잦았다. 또한 건강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은 가르치면서 손을 씻고난 후 뒷처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0년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습관을 바꿔요! 지구가 행복해요’라는 로고가 담긴 손수건을 제공하도록 준비하였다.

개별 손수건을 제작, 홍보하여 평소 학생들이 손 씻은 후의 1회용 휴지사용을 줄이고, 공동 수건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발생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5월 1일 양덕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손수건을 제공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운동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오신 학부모들에게도 ‘저탄소 녹색운동’의 의미를 새겨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5월 15일 토요일 5~6학년 학생들이 학교 인근 팔룡산을 등산하면서 손에 손수건을 묶고 땀을 닦는 모습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03



04



03 수영장에서 열심히 발차기 해요

04 가지런히 놓은 신발의 모습

전교생이 함께하는 ‘북천 올림’ 합주단



전 경 희

하동 북천초등학교 교장

1. 시작하며

어린 1학년, 2학년 학생을 포함한 전교생이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도서관에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온 교정에 울려 퍼진다.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북천 올림 합주단은 46명(1~6학년 전원)의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목요일(14:30~16:00) 외부강사로부터 주 1회씩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학생들의 정서 또한 불안한 어린이들이 있어 보다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 정서를 순화하고 자신감을 길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꿈을 키워주고자 선생님들과 의논 끝에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전교생이 참여하는 합주단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에 여러 가지의 기본 덕목 가운데 ‘조화’라는 단어의 중요성 및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북천 올림 합주단’을 통한 아름다운 심성 기르기

가. 전문 음악 강사를 통한 효과적 운영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음악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서로 다른 악기를 다루는 가운데 소리의 조화를 눈과 귀로 느끼면서 모두가 하나라는 집단 소속감과 유대감을 익히게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은 역할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나. 다양한 악기 지원 및 활용

기준에 본교에 있던 마립바, 비브라폰 등을 새로 수리하여 활용하였고, 전교생에게 고급 리코더를 구입하고 지원하여 합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자피아노,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 학교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악기를 활용하고 있다.

01



01 전문음악강사 지도



〈마림바, 비브라폰〉



〈아코디언〉



〈리코더〉

다. 전교생의 ‘합주부’ 참여

매주 목요일에 두 시간씩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본교 도서관에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질서 정연하게 연주를 하고, 각 학년별로 악기의 파트를 똑같이 묶어 잘하는 친구는 잘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며 배려, 협동 및 우정을 키우고 있다.

라. 다양한 교외 활동

‘합주부’는 교내 뿐 아니라 각종 교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3일에는 ‘북천 행복 나눔의 날’ 행사에 하동노인전문 요양원을 방문하여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었다. 북천의 학생들이 하동 지역에서의 소속감을 익히고,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봉사, 희생정신을 키우게 하였다.

3. 맺으며

요즘 6학년 김OO 어린이의 변화에 모든 선생님들이 놀라워한다. 가정 결손으로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항상 폭발 직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지켜보는 교사로서 늘 불안하였다. 그러나 합주단에서 리코더를 연주하면서 변화가 나타났고 지금은 비브라폰을 즐겁게 연주하고 있다.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그저 대견스럽기 그 지어없어 복도에서 만날 때 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그 동안 초등학교의 교육이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쏟아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딱히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봉사정신’, ‘협동’, ‘희생’, ‘조화’ 등등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사회적 덕목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덕목들을 수업시간의 교과서로만 가르치기엔 부족함이 많고 불가능할 것이다.

본교의 경우와 같이 다른 학교에서도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라는 초등학교의 큰 두 가지 목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모든 집단 및 사회에서 바라는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냄은 물론이고 ‘초등학교’라는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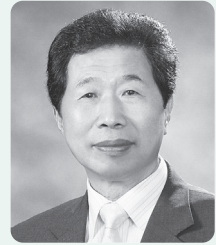
03



02 전교생의 연습 모습

03 하동노인전문요양원 공연

미래를 향한 즐거운 영어 놀이터 'Ancheong English Village'



변복도
안청초등학교 교장



01



02



03

1. 들어가며

본교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2009년 6월 23일 안청 영어체험교실(Ancheong English Village)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밀도있게 운영하고 있다.

안청 영어체험교실은 영어 사교육이 팽배한 교육현실에서 영어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구조와 시설, 교재를 짜임새 있게 구축·확보하였으며 아이들이 영어사용현장을 실제적으로 체험·체득함으로써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교구가 잘 갖춰진 영어놀이터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공적인 홍보와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영어 공교육을 펼쳐가고자 한다.

2. 펼치며

최첨단 인프라(1:1 화상화화로봇 Cyber talker, 영어책을 읽어주는 Magic pen, 그림 속 상황의 영어표현을 알려주는 Talking poster, 영어 교과서를 들고 따라 말할 수 있는 Robot doctor 등)를 통한 자기 주도적 영어학습의 바탕 위에 학부모 도우미 선생님, 원어민강사, 회화전문강사의 자발적 봉사를 통한 수준별, 테마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교의 영어체험교실(Ancheong English Village)의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ncheong English Village 프로그램의 운영 〉

운영내용	대상	활용시기	활용시간	장소	담당자
지주적 영어체험활동 (영어도서 및 첨단 기자재 활용)	전교생	월~금	월, 목, 금 : 13:00 ~ 16:00 화 : 14:50 ~ 16:00 수 : 14:00 ~ 16:00	영어체험교실	담당교사 학부모도우미
안청 Cinema Zone (DVD상영)	전교생	월~금	월, 목, 금 : 13:00 ~ 16:00	체험교실 내 시청각실	담당교사 학부모도우미
Storytelling	1, 2학년	월	월 : 13:00 ~ 16:00	영어체험교실	담당교사 학부모도우미
Let's play	3, 4학년	수, 금	수, 금 : 14:20~14:50	영어체험교실	담당교사 회화전문강사
Fun English	5, 6학년	화, 목	화, 목 : 15:30~15:50	영어체험교실	담당교사 원어민강사
토요 특별활동 (영어체험실 출입 통장 활용)	월별 활용실적 우수아동	1·3주 토요일	토 : 13:00~15:00	체험교실내 쿠깁 부스	담당교사

- 01 학생들의 영어체험실 복도 활용
- 02 1:1 화상화화로봇 Cyber talker활용
- 03 영어체험실적 통장 확인

가. 요일별 프로그램의 운영

매주 월요일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학부모 도우미 선생님의 Storytelling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주로 이제 막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직접 학부모 도우미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영어책을 읽어주고 내용을 전달해주는 과정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의 Let's play는 중학년(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인 생활표현을 영어보드게임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Fun English는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고 실제적인 영어표현을 사용해 보는 과정이다. 원어민강사의 자발적 봉사가 아이들의 회화연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 Cinema Zone의 운영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영어학습을 배제하고, 재미있는 교육용 DVD의 자막 없는 상영을 통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교육용 DVD의 상영과 시간표에 따른 반복적 상영을 함께 추구하여 새로운 속의 반복적 학습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 영어체험실적 통장제 프로그램의 운영

영어체험실적 통장의 횟수에 따라 쿠폰을 발급해주고 쿠폰을 학생들이 직접 Bank에서 달러로 교환한 뒤 Market에서 물건을 사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필수적인 생활영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ESL상황의 한계 속에서 아동들이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영어구사가 가능한 학부모 도우미 선생님의 보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

라. Saturday Special Activity(토요특별활동)

영어체험실의 지속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아동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등교하는 토요일 오후에 Saturday Special Activity(토요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영어체험실적 통장에 실적이 많은 아동을 선발하여 쿠키클래스와 메이킹클래스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함께 쿠키를 만들며, 영어표현을 배우는 활동이 처음에는 불과 몇몇 아동들과 조용히 시작되었으나, 능력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영어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이 확산되어 많은 아동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더욱 열심히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3. 맺으며

영어사교육비의 증가는 결국 아이들에게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슬픈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이다. Ancheong English Village는 교사와 학부모 도우미 선생님이 힘을 합쳐 내실 있는 영어공교육을 실현해내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 위의 다양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앞으로도 본교에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영어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04



05



06



04 Market에서 물건을 사는 활동

05 매직펜으로 영어책읽기

06 Saturday Special Activity(토요특별활동)프로그램 : 쿠키클래스

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금병 체육 한마당



구 인 수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장



01



02



03

1. 여는 말

본교는 2006년 3월, 12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2010학년도 40학급 1,300명으로 김해지역에서 6번째로 큰 학교로 변모하였다.

36학급 규모로 신축된 학교여서 4학급이 초과되어 교실 부족, 협소한 운동장으로 색다른 운동회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부장회의와 교직원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실외와 실내가 어우러지고 기존의 운동회 종목에서 탈피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오늘날 학교 운동회가 볼거리 없이 일찍 끝내는 행사로서 학부모와 지역공동체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에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2. 해결 실마리 그 첫 번째 - 1, 2부로 체육과 음악이 함께한 운동회로

협소한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운동회를 치뤄내는 것은 아주 벅찬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수차례의 토의결과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1, 2부로 나누어 시간대별 학년 운동회 운영’ 방식이었다.

오전 1부에 경기를 실시하는 학년과(1, 2, 6학년)과 오후에 경기를 실시하는 학년(3, 4, 5학년)으로 나누고, 1부가 체육활동을 하는 동안 체육관에서는 국악 공연으로, 2부가 체육활동을 하는 동안 1부가 국악공연을 하여 체육과 음악이 함께하는 입체적 행사를 실시하였다.

〈표 1 학년별 무용 및 경기 종목〉

학년	무용 및 경기 종목	학년	무용 및 경기 종목
1학년	지구를 굴러라, 날아라 우주로	4학년	Hey 미키, 카드를 뒤집어라
2학년	흔들 흔들, 달리면서 슛 골인	5학년	여기야 디여차, 운수대통
3학년	아리 쓰리, 꿈을 터트려라!	6학년	슈퍼맨, 젓 먹던 힘까지

3. 해결 실마리 그 두 번째 - 학부모의 참여 이끌어내기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년에 조직된 학부모회를 통해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절인 5월 1일(토)에 실시하여 평소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라 할 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참신하고 특색 있는 학년별 학부모 경기를 기획하여 학부모들에게 추억이 가득한 어릴 적 운동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2 학년별 학부모 경기 종목〉

경기종목	학년	세부종목	준비물	비고
학부모 경기	1학년	다함께 차차차	풍선, 비닐터널, 반환점	
	2학년	무엇이 나올까요?	콩주머니, 점심바구니	
	3학년	긴 줄넘기	긴 줄넘기	
	4학년	농구공 이고 달리기	바구니, 농구공, 반환점	
	5학년	힘이여 솟아라	타이어 줄다리기 세트	
	6학년	손님 찾기	손님 찾기 봉투, 신호총	

또한 사전에 미리 경기 종목과 시간을 안내장, SMS 문자 서비스, 알림장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해결 실마리 그 세 번째 - 문화체험의 장 ‘국악 한마당’

인근 창원시와 가까이 있으면서 농촌 지역적 특성상 턱없이 부족한 문화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랑 플러스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이라는 단체를 학교로 초빙하여 공연문화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회를 시도하였다.

바우처 제도(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 서비스제도)로 운영되는 공연팀을 초빙하여 2회 공연(오전 10시, 오후 1시)을 실시하였다.

〈표 3 학년별 국악한마당 관람 진행표〉

구 분	대 상	시 간	비 고
1부	3, 4,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10:00~11:00	국악한마당 관람
2부	1, 2,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13:00~14:00	국악한마당 관람

5. 닫는 말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운동회를 통하여 함께 뛰어 놀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만들어낸 좋은 추억은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씩 살찌워 갈 것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열정을 더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형식의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더 새로운 형식과 발전된 내용의 내년 운동회를 조심스레 떠올려 본다.

04



05



06



G · E · E (Green-Ecology-Education)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김 원 주
창원천광학교 교사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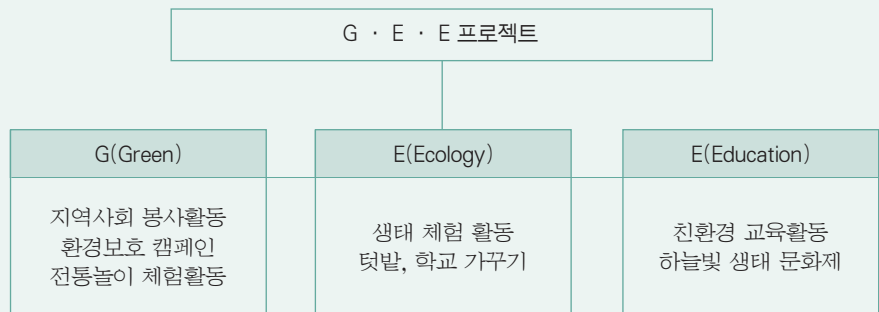
03

1. 들어가며

개정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과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단위 학교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우리 장애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우리는 장애아동들에게 기계문명 이외에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놀이와 학습 도구들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G · E · E (Green-Ecology-Education) 프로젝트, 즉 녹색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운영의 목적

G · E · E (Green-Ecology-Education)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 생태 체험 활동, 친환경 교육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신장하는데 있다.



- 01 초등부 전통놀이 활동
- 02 중등부 전통놀이 활동
- 03 휴공 단지

3. 주요 활동 내용

순	주요 활동 내용	시기	활동장소	참가대상
1	지역 사회 환경 보호 활동 - 장미공원, 습지공원, 가음정체육공원 등	연중	지역사회 공원	청각초등부, 정서부
2	전통놀이 체험활동 전개	연중	교내	전교생
3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가꾸기	4월, 10월	학교 뒷산	정서 중·고등부
4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월 1회	교내	전교생
5	생태 체험 활동 및 녹색 교실 만들기	연중	지역사회 공원,교내	전교생
6	친환경 교육활동 전개	연중	각 교실	전교생
7	하늘빛 생태 문화제	10월	교내	전교생
8	G·E·E 프로젝트의 교육 효과 검증 및 자료 정리	12, 2월	교내	담당자 및 협조자

4. 운영의 실제

1,3주 토요일에 교과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 운영하며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생태 체험 활동을 개발 적용했다. 가음정 체육공원, 장미공원, 습지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 생태체험활동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텃밭, 학교가꾸기, 전통놀이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생태 체험 활동은 교과 수업과 연계된 친환경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놀이 체험활동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효제·문화계승교육과 내고장의 인물탐구를 통한 조상의 얼을 계승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5. 마치며

우리 학교는 지역의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체육공원, 장미공원, 습지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체험 활동 장소와 시설의 활용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G·E·E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G·E·E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장애아동들이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통놀이 체험으로 2010년 경남교육의 효제·문화계승교육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응력 또한 길러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04



05



04 텃밭 가꾸기

05 환경 정화 활동

수업분석실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



강 신 화

진해 안골포중학교 교장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주체이며, 교육의 질과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내실화 실현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이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 중에서도 수업 활동은 핵심적인 것으로서 학교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교사 자신의 수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강점은 더욱 다듬어 나가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교수·학습능력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교사에게는 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은 교사의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업기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자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도 교사의 수업기술은 교사 자신의 부단한 자기 연습과 모니터링,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수업장학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공개 및 녹화 분석, 수업연구대회 등 기존의 수업장학은 수업공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 반응과 일회성의 보여주기식의 수업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실질적인 수업장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2010년에 전면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에 따른 교원의 수업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수업분석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선진 학교 방문, 교사협의회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2월말에 수업분석실 4실을 설치하였다. 수업분석실 1실의 환경을 살펴보면 DVR기기 1대(채널 9화면 가능), 2~3개(1실당) 카메라(교실 전면, 후사면, 측면), 앰프 1대, 무선 마이크 1대, 스피커 2개, 컴퓨터 1세트를 설치하였으며 수업분석실 및 인트라넷 상에서 실시간 및 백업용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교사들의 자기 장학에 최대한 도

01 수업분석실 녹화 화면



움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교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분석실은 Succes 실(영어교과 사용), 가우스실(수학교과 사용), 뉴턴실(과학교과 사용), 수업분석전용실(전교과 사용)로 현재 4실을 전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분석실에서 교사가 수업한 장면, 자동으로 촬영, 저장되고 이 동영상은 본교에서 2010년 효율적인 동료장학의 방법으로 마이크로티칭 기법(도입, 수업전개 등)과 45분 수업을 활용한 동료장학을 통해 수업의 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1년에 공개수업을 4번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은 2번의 자기장학용 공개수업(수업분석실 이용)과 2번의 학부모 공개수업이며, 첫 번째 공개수업인 자기 장학용 공개수업은 지난 4월 교사 개인별로 수업분석실에서 실시하고, 자동으로 저장된 동영상을 CD로 백업하여 교육연구부에 제출하면 공개수업을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료 장학용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수업분석실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기법의 20분용 수업, 수업 전 과정 45분용의 자기 장학용 수업 동영상은 교사가 수업분석실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여러 번 활용하면서 부담도 적어지고, 자신이 수업한 녹화 화면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수업 기법과 수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난 5월 19일(수) 실시한 제32회 중등학습지도연구대회 8지구대회에 본교에서는 8명의 교사(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음악, 미술, 기술가정)가 출전하여 모두 도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해 그동안 수업분석실을 활용한 수업이 교사 자신의 수업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는 앞으로 교사들이 수업분석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장려하여 수업의 질 개선과 전문성을 신장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02



02 수업분석실 촬영 화면

건강 한 손가락 예절 두 젓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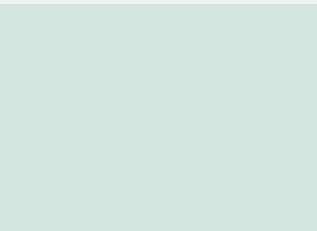


안 언 희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01



02

1.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적, 나의 아버지는 9남매의 장남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기억이 인상 깊다.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 할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오셔서 수저를 들면 그때서야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줄줄이 눈치를 보면서 수저를 식사를 했다.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 것은 지키기가 수월했지만 할아버지가 다 드시기 전에 수저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요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시간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사람다운 삶의 자세와 예절을 가르쳐 왔다. 식탁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초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교육환경이나 방식도 많이 변했다. 예전처럼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어른들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시킬 수도 없는 시대이다.

하지만 아동기의 인성교육은 인간의 성장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고 그 영역 또한 광범위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아동기의 특성과 생활 영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스러웠다.

2. 우리 반 아이들의 식습관은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예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실천하는지 알아보았다.

01 밥 먹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는 모습

02 교실에서 급식소로 가는 모습

조사한 내용	응답 결과
1. 아침에 밥을 꼭 먹고 온다.	10명 (29%)
2. 식사예절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한다.	9명 ((27%)
3. 올바른 수저 사용법을 알고 실천한다.	11명 (32%)
4.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다.	7명 (21%)
5. 식사하기 전 손을 항상 깨끗하게 잘 씻는다.	14명 (41%)
6.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	17명 (50%)
7. 밥을 먹고 나서 하루 3번 이상 이를 닦는다.	12명 (35%)
8. 웃어른께(부모님)께는 항상 높임말을 사용한다.	9명 (26%)
9. 온 가족이 하루에 1번은 함께 식사한다.	12명 (35%)
10. 식사시간이 즐겁다.	16명 (47%)

우리 반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는 학생은 34명 중에 10명으로 70% 정도가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고 있었다.

둘째, 식사예절에 대해 알고 있으나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평일에는 힘들고 일요일 아침은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고 하였다.

넷째,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는 않으며, 식사시간이 즐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 함께 실천하는 밥상머리교육

우리 반 학생들의 실태 분석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하여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 우리 반 건강 규칙(3·3·3)!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반 건강 규칙 3!·3!·3!을 정하였다. 첫 번째 3!은 하루에 3번 식사하기, 두 번째 3!은 식사 전후에 3번 양치하고 손 씻기, 세 번째 3!은 하루에 3번 감사하는 마음 갖고 표현하는 것이다.

▷ 밥상머리교육 지도 프로그램 활용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연간 지도 계획을 작성하고,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삽입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량활동을 통합운영하면서 식생활 영역을 연간 10시간을 확보하여 담임교사가 운영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고, 영양교사가 연간 5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식습관 태도 및 영양 섭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3



04



03 차례대로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

04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

▷ 밥상머리교육 실천기록장을 통한 바른 심성 가꾸기

밥상머리교육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건강한 손가락 예절 두 젓가락’ 밥상머리교육 실천기록장에 기록하게 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절교육, 건강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시민교육이 종합적으로 교육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밥상 통장에 건강과 예절을 모아요

학급홈페이지에 ‘밥상머리교육실천’ 메뉴를 만들고,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실천 내용,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는 내용, 주말에 가정에서 실천한 효도체험 활동, 실내화 씻기 등을 탑재하여 밥상머리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 반 건강이랑 예절이!

매주 토요일 체육시간을 줄넘기 하는 날로 정해, 3학년 아동 발달 수준에 맞춰 줄넘기 급수표를 수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줄넘기 연습을 하여 매주 토요일에 줄넘기 급수 시험을 본 후 급수 인증 스티커를 주고 매월 발달 정도를 확인하여 ‘건강이’와 ‘예절이’를 시상하려고 한다.

4.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밥상머리’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밥상의 머리맡에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들이 오고 가고, 복잡한 가정의 일들이 토론되고 해결되며,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예절)이 만들어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05



06



05 음식을 골고루 다 먹고 나서

06 밥상머리교육 실천기록장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한 수준별 방과후 교육활동 실현



추행옥

창원명곡고등학교 교사

수시로 변화하는 대학 입학 전형 제도에 대한 대응과 교육 당국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발맞추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중심의 공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일선학교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창원명곡고등학교는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한 수준별 학습을 실현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창원명곡고등학교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능력 있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표 아래 학생들이 열심히 꿈과 희망을 다듬어 나가고, 전 교직원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전인교육과 아울러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강사 실명제를 도입하였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사의 수업 모습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현재 4차 특강이 운영 중이고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논술, 영어회화 등을 중심으로 총 25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강사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번 4차 특강의 경우 심도있는 수업의 진행과 함께 진로 지도 등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과 학습 동아리 형식인 ‘심화특강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수강 인원을 20명 이하로 편성하여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다.

한편, 학생들의 수업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KT 에듀와 제휴하여 경남 최초로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질문을 하면 강사가 바로 답변해 주는 수업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3학년 학생 중심으로 수리 영역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1개반 25명이 수강 중이며, 4월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 강좌를 개설하고 또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1



02



01 사교육 없는 학교 특강 모습

02 대학생 멘토링 수업 모습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EBS 교육방송’ 시청 운영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올 12월말까지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EBS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교재를 무료 지원할 계획이며, 교과 담당 선생님 중심으로 감독교사를 배치해서 강좌 수강후 질문사항에 즉시 답변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갈수록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영어 관련 교육 수요와 지역·계층간 영어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 전용 교실은 영어 선생님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강의실 이외에도 도서실, 자료실, 소집단학습실, 개별학습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영어 친화적 학습 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어전용교실은 학생들이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한 영어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여 영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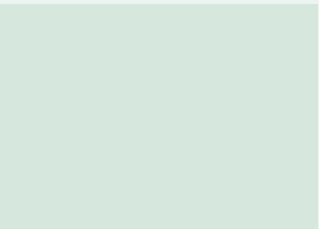
또한 학생 중에서 수학, 과학 및 자기 주도적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험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과 창의성을 발굴하여 유능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학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학생을 선발하여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수학·과학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 수학·과학 집중 교실 및 다양한 체험 학습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원명곡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해 특색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의 독해 능력 향상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아침시간 고전읽기’를 실시하고 있고, 입학과 동시에 ‘나에게 띄우는 편지’ 행사를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를 명확히 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신과의 굳은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이처럼 창원명곡고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 수요자 중심 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



03



04

03 양방향 인터넷 강좌 수업 모습

04 EBS교육방송 시청 모습



살아남은 자의 몫



김 경 영
마산 해운초등학교 교사

인간사 하루 해의 길이에도 희비가 엇갈린다.
 친남매 같은 죽마고우의 승진 소식을 접하고 환호하던 소리가 멎기도 전에 동료
 교사 시모의 부음을 접한다.
 나는 아직도 장례식장에 가는 게 힘들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내 혈육 같았고, 한 몸이 아니었어도 내 살 같았던 내 옆
 지기를 떠나보내던 고통스런 기억에서 나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장례식장에 가서 동료교사를 지켜보니 시집계나 살렸던 시모인지라 가슴 밑바
 닥에서 길어 올리는 애닦은 눈물은 없어보인다.
 하나, 나는 안다.
 문득 문득 그 빈 자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슴에 체 끼가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 숨쉬던 흔적을 하나 하나 지워나가야 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며 그것은 아직도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천형(天刑)이라고 생각했었다.

뚜렷한 대상은 없지만 마구 대들고 따지고 싶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바닷길
 만 바라보고 섰던 시간들…….

아내요 내조자라기 보다 그저 챙겨받기만 한 철없는 아우같은 존재였던 나 자신
 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 지새웠던 밤들…….

편안하고 든든한 그늘을 잃은 두려움에 끼니와 잠자기를 잊었던 날들…….
 이 모든 것들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었다.

하나, 어른들이 질고의 연륜을 실은 한숨과 함께 내뱉던 말,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 이제 그 상처에도 제법 딱지가 앉
아, 무덤덤해진 이 세월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도 나는 안다.

한 겨울 까칠했던 나뭇가지는 다시는 옛날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도 남 먼저
봄을 알아보고 잃어버린 색깔들을 되찾아 온 나무에 가득 번지게하는 것처럼 사
랑을 잃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사랑을 그려내는 것이 못내 죄스러운 것.
이 또한 살아남은 자의 몫일까?

남아있는 시간을 열손가락으로 헤어내는 고통으로 심은 복숭아 나무는 올해도
마디 마디 꽃을 피웠다.
진분홍 꽃잎에 옛일인 듯 미소짓는 얼굴 있어도 나는 꽃그늘 아래 더욱 서럽기
만 하다.





나비효과



이 영 혜
진해 중앙초등학교 교사

나비가 탕자꽃 담 사이를 폴폴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면서 1층의 그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다.

그 날 아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두 여자의 파스텔톤의 평온한 아침을 잿빛으로 적셔놓았다. 며느리의 유산 소식이었다. 한 달 전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었는데...

한참을 울먹이던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난 할머니가 아니야.”라고 했던 작은 말 씨앗들이 며느리의 유산까지 이르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하며 더욱 애답아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그 말 대신에 기뻐하며 “그래, 난 이제 곧 할머니가 될거야.”라고 해야 했다면서 젖은 눈가를 몰래 닦는 것을 모른 채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고통을 덜어 주려했지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꽃이 피고 지는 동안 아픔은 잊혀지리라.

울음과 함께 간간이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슴에 긴 바늘이 하나 지국이 꽃히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우울해졌지만 이내 마음이 훈훈해졌다.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게나 성숙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알기에 며느리의 유산을 말을 함부로 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이가 참으로 고와 보였다. 그렇다. 나이 든다는 것은 늘 차갑고 새초롬하던 눈 꼬리가 점차 둥글게 되는 일이고 남의 상처도 내 상처처럼 보듬을 줄 알게 되는 일이다. 그것이 나이 들의 선물인 게다.

그리고 나의 뽀족한 말 한마디, 모난 행동 하나가 다른 불씨로 살아나 큰 화를 입게 될까 걱정하며 조심하며 사는 일도 나이 든다는 증거이다. 더러 사람들은 이

런 것을 두고 자신감을 잃고 소심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1층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한 가지 일에 간절했던 한 때가 떠올랐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이 대입 수능시험을 마치고 수시로 넣었던 대학에 한 군데 두 군데 ‘톡,톡’ 떨어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하루하루 절망의 숲을 거닐던 때,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혼자 산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갑자기 ‘후두둑’ 소나기가 떨어지는데 딱정벌레처럼 생긴 검은 벌레가 천천히 한 발걸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피해서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날은 지나다 다시 돌아와 길옆으로 살짝 밀어 넣어 주었다. 그냥 두면 오가는 사람들 발에 깔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내가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사정을 생각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소한 동작으로 하여, 끔찍이도 사랑하는 내 딸의 대학교 입시가 성공적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뿐이었던가? 목욕탕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려했고 나갈 때는 남이 썼던 바가지, 대야까지 다 정리하였다. 그렇게 착한(?)일을 하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리라 억지로 믿고 싶었다. 그래 그런지 다행히 딸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로도 나는 그때 간절히 원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미운 소리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개 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나의 말과 행동의 씨앗이 언제 어떤 싹이 터서 어떤 모양의 꽃이 필지.

흰 꽃담 사이를 한가로이 넘나드는 나비를 보면서 그녀의 시름을 함께 보듬으며 나비효과를 떠 올린, 조금은 아리고 나른했지만 따스한 사십 후반의 내 봄날이었다.

남에게 항상 둥근 미소를 잘 짓는, 고운 그녀의 며느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기를 바란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 될 것이다.



What a delight!

My experience as a native-speaking
English teacher at Seokdong Elementary School



Chantal Pare

Seokdong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

When I first arrived at the Board of Education in Changwon, I met my co-teacher Gyeong Eun Kim. She took me to Seokdong Elementary School, where I met the principal, the vice principal, the administrators, and of course many other teachers for the first time. Everyone was so welcoming and kind. They made sure I had everything I needed for my apartment and helped me complete many tasks that I couldn't have done on my own. My co-teacher especially went above and beyond, helping me in any way that she could.

The students here at Seokdong Elementary are fantastic. They are well-behaved and always enter my classroom with smiles on their faces. At first, it was a bit of a struggl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schedule, the curriculum, and the 200 students whom I teach only once or twice a week. But now, after three months of teaching, I feel more comfortable in my position. The students seem more comfortable with me and my teaching style as well. With each passing day, I see more participation and eagerness to learn English amongst the students. I'm very excited to see how their English ability will improve over the year.

What is making my experience here even more enjoyable is the fact that I am living in Jinhae. Jinhae may be a smaller city, but I believe it has a lot of character. I think Jinhae is a very peaceful and beautiful city. My favourite time of the year here is spring. The Cherry Blossom Festival is such a fun and exciting event.

Although the cherry blossoms are only out for a short time they are such a wonderful sight to see. I love riding my bike down to the waterfront and I always look forward to market day, where I get the opportunity to buy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nd see and experience such a wonderful ongoing tradition.

Since my arrival, I still feel a great sense of community and care here at Seokdong Elementary School. Knowing that I'm appreciated and cared for makes me feel like I'm a part of the school, enabling me to do my best.

Thus far, working at Seokdong Elementary School has been a delight! The person I have to thank most is my co-teacher, Gyeong Eun Kim. She is very kind and dedicated to her work. My co-teacher and I both want to see our students excel in English. I enjoy working with her; preparing lessons and conducting classes. I can feel and see that our lessons are improving day by day.

I'm very grateful for my job here at Seokdong Elementary School. I hope the students, teachers, and other staff are pleased with my work here as well.



〈원어민 수업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구 미 숙

경운초등학교 5학년 2반 손성현 어머니

예측할 수 없는 짓궂은 날씨의 봄, 하루하루를 보내며 길가에 활짝 핀 봄꽃의 아름다움과 살며시 고개 내민 들꽃들을 보면서 억척같은 계절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경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이의 입학식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입학식에서 제법 의젓하게 서 있었던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학년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애정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의 에너지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언제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미래교육에 대한 정보에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며 눈물짓는 부모에겐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던 선생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2010년 1월에 교육청 영재교육원 합격에 평평 울던 모습과 어린이회 부회장에 당선된 후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에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힘들어 포기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4일 ‘장애우 가족등반대회’에 초등학생봉사자로 참여, 장애우와 함께 봉화산을 등반한 후

“엄마, 아빠! 저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행복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학교선생님의 교육과 사랑이 우리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구나.’라고 느끼며 선생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욕심만을 앞세워 많은 학원을 오가며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이 제 때 간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투정부리지 말고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은 언제나 환하게 웃습니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겐 항상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하는 선생님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아도 항상 그 자리에 서있는 존재!

그래서 등과 마음이 따뜻해지며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한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어쩌면 점점 더 숨쉬기 힘들지도 모르는 이 지구에서 아이를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공기 같은 존재…….



지리산 지킴이



정은지
성호초등학교 5학년

우리 큰아버지는
지리산 지킴이

우리 건강하라고
날마다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신다.

할머니 위해
삼을 찾고 계시는
지리산 지킴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쭙보면
지리산이 힘을 불끈불끈 주신다며
굵은 알통을 보여 주신다.

산에 다녀오실 때마다
냇은 배낭 속에는
약초와 함께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한 가득 넣어 오신다.

지리산은
날마다 우리 큰아버지를 기다리겠지.

심심하고 외로울 때
친구도 되어주고
냄새나는 쓰레기도 치워주니
지리산은 좋겠다.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어서

냇은 배낭 메고
또 지리산으로 향하는
큰아버지의 뒷모습도
산을 닦았다.





미래의 탐험



류 인 혜

진주 망경초등학교 6학년

2010년 어느 날,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론가 떨어졌다.

“여기가 어디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지! 내가 설마 북한으로 왔겠어? 그냥 막 걷고 있을 때쯤, 한 신문을 집어 들었다.

이게 대체 뭐야? 완전 인터넷 뉴스페이퍼잖아! 게다가, 지금이 2036년이란 말이야? 내가 26년 뒤로 온 거구나...나는 그럼 39세란 소리인데,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더 놀라운 사실까지 발견했다. 바로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란?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속에서 나는 아나운서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꿈을 이루었던 생각으로 뿌듯해하며 계속 그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나온 뉴스는, 남북통일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새롭게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 내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이유도 알게 되었다. 뉴스에서 남북을 통틀어 대한민국이라 한다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으로는 남북통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통일이 되기 전의 50년 동안의 시간동안 이 산가족들의 아픔이 너무 깊어져 치유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나가다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다. 모든 일을 로봇들이 하고 있었다. 물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문 인식과 휴대폰 인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지문 인식은, 말 그대로 지문을 인식해서 물건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휴대폰 인식은 휴대폰을 바코드에 찍어서 물건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며, 돈은 전자 화폐를 사용한다고 한다.

나는 서둘러 지문 인식으로 계산을 하고 로봇의 인사를 받으며 편의점을 나왔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공간을 밟아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타임머신 공간입니다.”

타임머신? 집으로 돌아갈 때 타고 가면 되겠네.

“기회는 단 세 번입니다.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어디로 가 볼까나? 아, 이것 참 고민되네.

“이곳보다 미래로 가주시겠어요?”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시간은 5분이며, 더 빨리 오고 싶으시다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사람에다가 심각한 환경오염! 으악, 끔찍해! 나는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휴우, 살았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로봇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그러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 생각났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오, 꽤 좋은 곳인 걸? 남편이 많이 낯익은 얼굴인데? 헉! 아, 결국 재랑 됐구나. 딸은 6살쯤 돼 보인다. 어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버튼을 눌렀다.

나는 이제 2010년의 나로 돌아가기로 했다.

“2010년의 나로 가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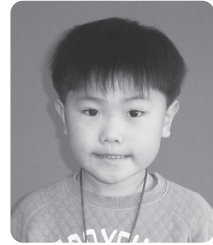
“인헤야~인헤야~일어나야지.”

아! 꿈이었구나! 꿈이라고? 말도 안돼! 어쩜 꿈일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꿈이라고 해도 너무 생생했던 것 같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2010 경남 새싹 글잔치 고향년 산문 최우수 작품〉



사랑하는 선생님께



최 우 진
신등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최우진이에요.

신등초등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다리도 떨고

손도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화도 많이 내어서

속상하셨지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런 것들만 고치면 창원에서 가장 멋진 학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또, 곧게 자란 나무는 나중에 멋진 가구가 될 수 있지만 굽은 나무는 뿔감으로만 쓰인다고도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또 친구들도 잘 도와주며 바른 어린이로 잘 자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참 많아요.

과학자도 되고 싶고, 탐험가, 모험가,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2010년 5월14일 최우진 올림



남은, 상실.



김보라미
거창 청동초등학교 교사

작년 봄 유난히 봄이 늦은 듯 해 매일이 춥고 허전했던 교직생활 첫 해, 나는 저녁밥을 항상 두 번 먹었다. 무엇이 그토록 힘들었는지 늘 허기가 져서, 할 수 있는 ‘생산’은 먹어 쌓는 것 밖에 없었다. 그 때 얼마나 ‘상실’이란 말이 간절했는지, 나의 각종 이상과 바람 모종의 의지와 열정들은 세찬 폭우에 떨어지는 어린 잎처럼 현실로 떨어져 내렸었다. 책장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던 ‘상실의 시대’란 책을 꺼내 읽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상실의 시대를 읽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원제이기도 한 ‘노르웨이의 숲’이란 비틀즈의 노래가 전혀 처량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작가가 의도한 그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골몰하다, 현자에게 답을 찾아 나서는 수도승의 마음으로 노래를 썼는데 이게 웬걸- 노래는 언뜻 감미롭고 사뭇 황홀하기까지 했다. 마치 비가 갠 후 거뭇한 어떤 것들이 씻긴 낯설고 평화로운 숲길을 거니는 듯한 기타 소리는 와타나베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왔다. 상실의 부산물-무어라 확실히 정의내릴 순 없지만 상실이 남긴 것, 상실 끝에 남은 것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뇌의 어느 한 구석에 스스로 완전을 기하도록 하는 본능이란 뜨거운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본능이란 것이 실로 뜨거워 손이 닿으면 처음에는 ‘앗, 뜨거워’ 하다 후엔 감각도 정도도 없이 서서히 마비되고 마는 것이라면, 얼음이 뚝뚝 뜯겨 물을 한 컵 왈각 쏟아버린다 해도 뜨거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잔인하고 나약한 그리고 가장 열렬한 인간의 한 본능. 책은 가장 연약하고 반대로 가장 뜨거운 인

간의 본능을 그리고 있다. 제 감정에 날 것 그대로인 사람들은 그 깨끗한 손을 들어 곧잘 불덩이에 가져다 대곤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다. 그 어떤 방어벽도 그러므로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 내내 그 생생한 아름다움에 기를 빼앗기곤 했다. 책 속에서 사람들은 시종일관 무언가의 상실과 부닥쳤으며 그 상실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의 허무함보다 그것의 뜨거움과 마주하게 되었다. 끝없이 펼쳐진 가로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새로운 세계와 나의 세계의 묘한 경계가 되어, 나를 떠오르게 했다. 기억의 상실, 추억의 상실, 사랑의 상실, 슬픔의 상실 나는 수많은 감정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 속에 있노라니 상실이란 단어에 무색하게, 그 모든 감정이 오롯이 피부로 전해져왔다. 그러자 ‘그깟 일로 목숨을 끊다니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했던 과거의 말들이 상식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 되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 방어하지도 못하는 젊은 그들에게 상실은 존재와의 갈등이었던 것이다.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존재의 모든 이유가 순간에 의지하게 되는 찬란한 인간의 시대가 꿈꾸듯이 펼쳐졌다. 떨어진다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잃는다는 것은 가졌다는 유치한 반증이 떠올랐다. 잃었다는 현상보다는 끈적하게 남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은 것, 남긴 것이 보이자 머리 속은 훨씬 산뜻해졌다. 800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의 인쇄소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를 이해할 만 했다. 상실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더 입히는 것도, 덜 감추는 것도 없이 드러내고 있으니 세상 곳곳에 나처럼 나약한 인간들이 환호할 법도 하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을 잃으며 살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며, 운이 좋을 경우 슬펐던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사랑했던 기억, 찬란했던 추억, 떠오르는 그리움을 잃고 얻길 반복하며, 숨 가쁘게 시린 외로움과 사투한다. 그리 바빠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외로워 아무데나 주저앉아 외로움에 울부짖을 수도 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옳다 말할 수는 없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처럼 좀 더 더운 사람일수록, 좀 더 날 것인 사람일수록 상실에 쉽게 잠식되는 법이다. 세상 모든 일이 비워내기와 한 판 승부인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들은 많이 남은 사람들이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욱이 답은 요원하며, 그만큼 아름다움은 진하다.

‘남은, 상실’이란 제목을 붙이고 나니 좀 더 건전한 ‘재생’이란 말이 쓰고 싶어지지만 누군가 한 번이라도 노르웨이의 숲이란 노래를 들어보았다면 재생이랄지 남았다든지 하는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서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계속되는 길과 하늘을 채우는 나뭇잎과 담백한 기타소리가 쉬지도 지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끊이지 않는 풍경들.



쇼스타코비치의 ‘Second Waltz’

: ‘Jazz Suite No.2(Suite for Promenade Orch): VI, Waltz 2’



하 승 우
경남해림학교 교사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는 바닷가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이은주와 이병헌의 왈츠 장면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배경음악이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의 ‘Second Waltz’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은 그가 음악적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학창시절에 서방 재즈 뮤지션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며 28세 때인 1934년에 재즈 모음곡 1번(Jazz Suite No.1)을 작곡하였고, 4년 후 1938년에는 크누세비치키가 지휘하는 재즈 국립악단을 위하여 재즈 모음곡 2번(Jazz Suite No.2)을 작곡 하였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은 채우지 못한 음악적 호기심이 충만했던 학생시절에 구소련을 방문한 서방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회에 종종 참석했었던 쇼스타코비치가 재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 작품이다. 그러나 서방의 음악이었던 재즈가 구소련에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부르주아적 문화와 퇴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음악에 불과하다는 의혹과 적대심을 갖는 부류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30년에 쇼스타코비치는 당시 구소련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재즈 뮤지션인 레오니드 유티오스프와 그의 악단 ‘Tea Jazz’를 사귀게 된다. 그들은 정통 재즈를 연주한다기보다는 일반 경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으로 음악성이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티오스프의 음악을 구소련에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쇼스타코비치는 재즈어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쇼스타코비치는 1934년 구소련의 재즈를 대중적 카페음악에서 전문 음악의 장르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재즈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재즈 모음곡 1번을 작곡하였다. 이어서 1938년에는 새로 구성된 크누세비치키가 지휘하는 재즈국립악단을 위해 작곡한 재즈 모음곡 2

번이 완성되었다. 두 개의 작품 모두 쇼스타코비치의 오케스트레이션(관현악기법)에서만 볼 수 있는 명석함과 위트가 돋보이고 있는 반면, 작품 자체는 재즈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재즈적인 깊이보다는 그가 영화나 극장용 음악을 작곡할 때 사용한 경음악 어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번 모음곡이 1920년대의 화려함과 퇴폐를 반영하고 있다면, 2번 모음곡은 비엔나의 요한 슈트라우스 풍에 가까운 동시에 구소련의 붉은 군대를 연상하게 한다.

재즈 모음곡 2번(Jazz Suite No.2)에 수록된 왈츠 곡인 ‘Second Waltz’의 정확한 제목은 ‘Jazz Suite No.2 (Suite for Promenade Orch): VI, Waltz 2’이다. 특히 이 ‘Second Waltz’는 러시아 미하일 카라토조프 감독의 영화 ‘제 1 여단’에 삽입되었으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셋’에서 주연 여배우 니콜 키드먼이 파티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왈츠를 추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곡이다. ‘아이즈 와이드 셋’의 탐 크루즈가 극 중의 그의 아내 니콜 키드먼에 대한 심리적 강박증과 쇼스타코비치의 예술과 이념 사이의 강박증은 큐브릭 영화의 이 중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준다.

서정적인 러시아의 느낌이 가득한 곡으로 영화에서 사용된 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 명이 ‘The Jazz Album’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와는 거리가 있는 곡들로 채워져 있다. 그 이유는 쇼스타코비치가 구소련에서 활동하고 있을 당시, 유입되었던 재즈 음악들이 구소련 정부의 검열로 인해 제한적으로 소개되어 걸러진 재즈만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사회주의에 자신의 예술적 이념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던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적 무거움을 형식주의로 몰아부치는 사회주의 당원들에게 ‘나도 인민을 위한 가벼운 곡을 쓸 수 있음’을 증명한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왈츠는 왠지 우울하고 무겁다.

러시아풍의 우수가 담긴 듯 한 서정적 주제 선율을 왈츠라는 흥겨운 춤곡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감추어진 슬픔이 잘 표현된 곡으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장윤현 감독의 ‘Tell me Something’에 삽입되기도 했다.